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검은 반도체’ 김을 위한 헌사

어머니는 연탄아궁이 위에 석쇠를 올리고 김을 구우셨다. 검고 얇은 김은 민감했다. 조금만 연탄과 가까워지면 누렇게 닳고 조금만 연탄과 멀어지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은 불이 아닌 불기운으로 익히는 음식이다. 김이 구워지기에 적당한 거리와 시간. 그것은 오로지 경험으로만 측정 가능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검고 불투명한 색이 빛이 통과할 정도로 투명한 녹색으로 변하면 김은 할머니에게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포개 가며 조리용 붓으로 쓱쓱 찜기름을 발랐다. 붓질은 정교하지만 거침없었다. 김에는 반쪽반쪽 생기가 돌았다. 그 생기 위로 굵고 하얀 소금이 사뿐 내려앉았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 가는 구운 김을 보며 나는 그날 저녁 밥상을 기다렸다.

밥을 품은 김은 바삭하고 달큰하고 짭조름하고 향긋했다. 김과 찜기름과 소금 그리고 쌀밥. 당시엔 그보다 맛있는 조합도 없었다. 취했던 시절이나 할머니와 어머니의 집과 김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먹었다. 강력한 태클이 들어왔다. 구운 김은 식사 때 밥상 위 말고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대체 어디다 숨겨 두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김 정도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 그런데 생각만

큼 행복하지 않다. 당연하다. 맛에 대한 인간의 기억은 사실보다는 판타지를 좇기 때문이다. 김을 굽고 기름칠을 하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 김과 찜기름 향으로 채워졌던 부엌의 공기, 그리고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의 아련함. 구운 김은 김의 맛 자체보다는 그 모든 기억의 총량으로 내 기억을 지배하는 탓이다.

그런데 나는 뜻밖의 공간과 상황에서 새로운 차원의 김을 만났다. 음식 장인이 많은 일본에서도 소바(메밀국수)집은 특히 장인의 영역이다. 소바하지만 격조 있는 공간에서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메밀국수 하나만 만들어 온 장인이 버티고 있는 곳. 심지어 누구누구의 제자이며 누구누구의 스승이라는 식으로 족보까지 만들어 계보를 잇고 있는,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음식집. 그것이 일본의 전통적인 소바집 모습이다.

흔히들 소바집 하면 메밀국수를 잘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애호가라면 그 이상을 원한다. 전통 있는 소바집이라면 주문과 동시에 반죽을 밀고 국수를 삶는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물론 행복한 기다림이다. 하지만 애호가들은 그 행복한 기다림이 더 행복하길 원한다. 그래서 맑은 청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킨다. 이 안주를 가리켜

소바를 먹기 전에 먹는 음식이라 해서 ‘소바마에’라고 한다. 애호가들은 메밀 국수만큼이나 소바마에의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의 소바집에서 청주와 함께 김을 시켜 봤다. 작품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나무 상자가 나왔다. 뚜껑을 열었다니 반듯하게 잘린 김 여섯 장이 들었다. 아저씨가 없었다. 밥 한술 겨우 싸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김 한 장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무려 2000원을 해야 했다. 속은 썩치고 김 한 장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태양이 완벽하게 가뒀 놓은 농축된 바다의 맛과 향. 김은 혀 위에서 녹고 흘러지며 그 짙은 맛과 향을 입안 가득 채워 나갔다.

일본인 친구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맛있는 김을 만들면서 왜 한국만 오면 그렇게 많은 김을 사가냐?” 일본인 친구의 답은 간단하고 분명했다. “한국이 조미 김을 그렇게 잘 만드는데 왜 우리가 굳이 만들겠냐?” 그 순간 나는 김을 재배하고 만드는 수준의 차이가 아닌, 관점의 차이가 낳은 엄청난 국제 분업의 실상을 깨달았다.

김은 2018년을 기준으로 무려 5억 2553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의 전통 음식 가운데 단일 품목으로 최고 기록이다. 김치의 수출액이 1억 달러가 채 못 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위상이 짐작된다. 가히 ‘검은 반도체’로 불려도 손색없는 실적이다. 우리 민족은 신라시대부터 김을 먹었으며 조선시대부터 인위적인 재배를 해 온, 수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양식의 역사를 갖고 있다. ‘신동국여지승람’ ‘경상도지리지’ ‘경세요표’ 등 우리의 옛 문헌 곳곳에서 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낸다.

한편 가을별에 말린 김은 겨울 동안은 그 신선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봄이 되어 묵은 김은 맛이 떨어졌다. 우리 조상들은 묵은 김에 찹쌀풀이나 밀가루를 묻혀 새로운 맛을 부여했다. 이렇게 거듭 태어난 김을 튀긴 것이 부각이다. 부각은 밥반찬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주전부리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한국 음식 가운데 김이 수출 효과 상품 노릇을 하는 선두에는 조미 김과 스낵이 있다. 조미 김은 아궁이에서 김을 굽던 어머니에게서, 김 스낵은 묵은 김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의 흐름에도 도도하게 그 위상을 지켜 오고 있는 김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맛 칼럼리스트〉

의료칼럼

여름철 선글라스



마양래 보리안과병원 원장

성큼 다가온 여름, 불법드워를 준비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여름철 패션의 완성이라는 선글라스를 많이 찾는 계절이기도 하다. 선글라스는 1430년대 중국 법정에서 판관들의 눈빛을 가리기 위해 영리하게 그을려 안경 렌즈를 어둡게 만드는 안경을 시작으로, 1930년대 후반 미국 항공대 소속 조종사들에게 시력 보호 차원에서 안경을 지급하면서 대중화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흔히 우리는 패션용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선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자외선에 의한 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

달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파장은 피부에 깊게 침투하는 UVA(315-400nm)와 피부 겉에 화상을 입히는 UVB(280-315nm)로 나뉜다. 이 파장이 각막·망막·수정체 등에 흡수되면서 활성 산소를 발생시키고 세포를 손상시켜 광각막염, 백내장, 황반 변성과 같은 안 질환을 유발한다. 자외선에 눈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눈에 통증이 오는 광각막염은 각막과 결막에 입는 화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마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과 같은 통증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며, 심각한 고통이 느껴진다.

눈 안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수정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백내장은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 질환이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활발한 젊은 사람들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잦고, 자외선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노화를 양화하며,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응축하게 만들어 백내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과 더불어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원인 질환 중 하나인 황

반 변성은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인 황반부에 변성이 생겨 발생한다. 주증상으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시야 중심에 사라지지 않는 점이 보이고 심하게 진행된 경우 실명을 유발하지만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고 시력 감퇴를 느끼지 못해 증중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평소 자외선으로 인한 눈 노화와 질환을 예방하려면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외출 시 선글라스를 필히 착용해 자외선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햇빛이 강렬한 여름철에만 자외선을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주 흐린 날씨를 제외하고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외출 시 선글라스 착용으로 눈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선글라스가 시중에 나와 있지만 모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선글라스 선택 시 자외선 차단 코팅 유무와 UVA, UVB를 차단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

다. 또한 선글라스의 색이 짙다고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색깔이 짙을 경우 오히려 시야가 어두워져 더 잘 보기 위해 동공이 확장돼 자외선이 더 많이 침투할 수 있어 눈동자가 들여다보일 정도로 75-80% 농도의 렌즈를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렌즈의 크기도 중요한데 렌즈는 되도록 크고 밀착된 것이 좋다. 눈에서 렌즈가 떨어지거나 렌즈 크기가 작을 경우 눈 정면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피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다. 장소나 용도에 따라 눈을 보호하는 렌즈 색상도 달라진다. 햇빛이 강한 날의 운전자는 갈색 렌즈, 바닷가나 스키장에서는 시야의 이물감을 덜어주는 녹색 렌즈, 어두운 작업장이나 야간 운전자에게는 주황색 렌즈, 사격이나 레저용으로는 사물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황색 렌즈가 좋다.

오존층은 파괴되고 자외선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단순한 패션 아이템 역할을 넘어 눈 건강에도 중요한 선글라스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고

넓은 아파트의 변화와 혁신



배운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여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어디 아파트 사세요?”, “어느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아무래도 광주시 건축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기대감을 갖고 물어보는 건 당연지사다. 그 기대가 무색하게도 나는 넓고 오래된 아파트에 20여 년 동안이나 산다.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짙은 그 흔한 지문 인식기도 없고 차량 통제 자동 센서도 없다. 심지어 큰 대교가 인근에 있어 소음에도 취약하고, 교육과 문화생활 등 주변 환경도 낙후되지 않았다. 그래도 쉬이 이사를 꿈꾸지 못했던 건 첫 집 정만한 애뜻함도 있고 추억도 켜켜이 쌓여 정든 공간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성격 탓도 없지 않다.

도대체 아파트란 우리에게 무엇일까?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했다. 서구

의 아파트는 주로 도시 문제의 집약체로 인식된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성장감을 쌓아 올린 듯 볼품없고 생활 환경면에서는 저급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도시의 소외 계층이 거주하는 범죄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브랜드에 따라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아파트는 이제 한국인의 대표 주거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아파트 역사 50여 년, 재개발로 지령이 같은 옛 골목길과 녹슨 대문, 낮은 담장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높이를 자랑하는 듯 마천루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사라졌다.

몇 년 새 광주의 아파트 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크다. 30여 년간 건축 현장에 몸담았지만 광주가 빠른 속도로 건물의 키를 높인 것도 사실이다. 도시 정비 정책과 건축법 개정으로 높이를 제한해보려는 시도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논리는 차갑고 건설 업체의 협력은 어렵다. 그나마 댄스 러운 것은 지난해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구역 중 사업 추진이 더딘 곳이

나, 과감하게 주민들이 재개발보다는 마을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을 위해 동명 1구역 등 10개소를 재개발을 3개 층까지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 범위를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허물어지고 지어지는 사이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많아졌다. 아파트가 거주 공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상품이 되어 사람들은 살지도 않을 집을 투기로 소유하고 점점 더 높은 집을 지향한다. 아파트를 투기 도구로 바라보고 효율과 발전, 미관 개선의 명목으로 재개발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 넓은 집이 가지는 의미를 던지지 말고 싶다.

집은 인간의 몸과 영혼이 깃들여 쉬고 성장하는 특별한 장소다. 아파트가 그런 고전적인 의미를 찾는 집이 될 수 있을지 나는 무척 회의적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집이든 집의 가치를 발견하는 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몫이니까. 아파트가 진정 집으로서 가치와 광주의 결을 담을 수 있을지 광주다운 건축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 광주시의 공동 주택 리모델링 정책이 새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가치와 정의로운 광주 공동체의 의미를 담아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 서둘러라

강원 산불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1년 넘도록 방치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전국 시도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투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지역별 소방 투자의 편차는 정원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의 경우 2018년 기준 법정 인원이 4132명이지만 정원은 2826명으로 68%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은 60%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반면 대전과 서울은 90%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 안전에도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방관 국가직화와 함께 2022년까지 소방 인력 2만 명을 확충해 열악한 지역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높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소방관 국가직화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7%가 찬성했다. 강원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도 38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국회 파행으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10월 시행하려면 이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열악한 여건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여야는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공약대로 추진을

장성군은 전남대병원과 손을 잡고 지난 2007년부터 '국립 심뇌혈관 질환센터'(이하 심혈관센터)를 호남권(장성)에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번번이 무산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을 '광주-전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어 현 정권이 들어선 뒤 '100대 국정 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 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10여 년간 지체되면서 호남권(장성) 외에도 충청권(오송)과 경상권(대구)에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던 지역 민들은 이제 와서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허탈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서울에서 '국립 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암 다음으로 많다. 심혈관 질환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전남대병원 등 14개 권역별 심혈관 센터가 있지만 이를 총괄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립 심혈관센터는 없는 상태이다. 국립 심혈관센터 유지는 전남도의 숙원 사업이다.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당초의 공약대로 당연히 호남권(장성)에 유치돼야 한다. 전국 공모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자칫 지자체 간 소모적인 분쟁만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백년지대계 해안을 기대한다.

無等鼓

경찰청이 60년 만에 정보국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별개는 지난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가깝게는 지난해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이들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름을 개명하곤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개명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뒤 매년 15만 건 이상의 개명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김춘수의 시 '꽃'에도 언급됐듯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고대 로마에는 '이름이 곧 운명'(Nomen est omen)이라는 격언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 지명을 영어로 재해석한 '영어식 한국 지명'도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예를 들어 목포(木浦)는 'Wood Coast', 여수(麗水)는 'Beautiful Water', 광주(光州)는 'Bright Region', 전주(全州)는 'Perfect Area'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내용

이 그럴듯한 데다 해당 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역시 이 지명의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과거 오랜 기간 지켜 온 이름이 대규모 프로젝트나 사업을 통해 재해석되고, 그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해 최근 인구 3만 명을 돌파한 무안군 삼향읍 남약리와 2009년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발사지가 들어선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등의 한자 이름을 보면 마치 오래 전부터 도청이나 우주센터가 들어설 운명이었던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지난 2007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맞춰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 혁신도시를 둘러싼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도의 마찰이 해결 기미 없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양 시도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공동 조성' 카드를 정부에 내밀어 한국전력을 품에 안았다. 광주의 빛과 전남의 가람(영산강)을 빌어 탄생한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단체장들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선)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220-0632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업무국	220-0551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0-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